

동서양 건축에서의 공간과 시간

김 성 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제어 : 공간, 시간, 동서양, 건축, 변화, 운동

1. 서 론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서양건축의 전통과 동아시아에서 전개되어온 동양건축의 전통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형태가 다르거나 재료의 선택이 달랐다는 외형상의 차이는 표피적인 것이고 그렇게 외형이 다르게 나타나게 한 것은 외형 속에 숨어 있는 건축관의 차이였다. 한편 그렇게 건축관을 다르게 하는 요인으로서 숨어 있는 것은 문화형식을 다르게 결정짓게 하는 문화권 고유의 세계관이다. 따라서 동서양의 건축을 같이 이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적 형식의 이해로는 충분할 수가 없고 건축형식을 결정짓는 서로 다른 건축관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와 연결되며, 또 건축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권마다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건축의 영역을 벗어나는 포괄적 논의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건축 전공자에게 주저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시도가 한번에 완전해지지 않는더라도 시도 자체를 보류하는 것은 그만큼 동서양 건축에 대한 이해를 제한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를 지체시키지 말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을 쓰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다.

이 논문은 어느 특정 나라의 건축을 다루지 않고 동양의 건축과 서양의 건축을 다룬다. 서양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전통을 가리키며 동양은 동아시아의 전통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 지리적 범위가 분명하기보다는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동양건축과 서양건축을 다루되 둘 중의 하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다루면서 그 비교를 시도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논문의 주제로서 몹시 범위가 넓고 따라서 일반화의 폭을 키우지 않고서는 논의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안다. 그러한 어려움이 이유가 되어서 이러한 논의를 계속 유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금 우리의 건축적 상황은 동서양의 건축적 특성을 문화권마다의 고유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20세기 이후 한국건축의 상황은 싹고 줄고를 떠나서 동서양의 문화적 요소가 혼합, 동화, 및 변질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정체성과 방향성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의 돌파구는 과감한 건축관적 동서 비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도 이러한 방식의 논문을 쓰게 하는 또 다른 배경이다.

이 논문은 「건축과 환경」, 김성우, “동서양의 세계관과 건축관: 공간-시간”(2000.8)에서 처음 연재되었으며, 수정보완한 후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 다시 기술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적 이유에서 동서양 건축의 건축관적 비교를 시도하더라도 동서양건축을 전체로서 한꺼번에 하나의 논리적 체계 속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모한 일일 것이다. 이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은 논의의 영역을 좁혀서 주제를 한정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 주제를 동서양 건축에서의 “공간과 시간”의 문제로 한정하려 한다. 동서양의 건축이 건축관과 세계관의 차이로 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때 건축의 모든 측면을 다르게 하면서 공간과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개념화 하였고 또 어떻게 건축화 하였는가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방식과 그것의 건축적 표현방식의 차이를 주제로 하여 그 차이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공간, 시간의 문제는 건축을 그 출발점에서부터 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므로 이 문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건축 전체의 이해를 제한시키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의 논의를 동서 비교의 관점에서 시도하였던 선례가 충분히 많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시작하는 문을 열어보려한다.

건축을 논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이란 것은 공간과 시간의 인식방식을 건축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건축전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을 때 그 다름을 공간과 시간의 이해방식의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시간 공간의 문제를 동서양의 시공간인식방법의 차이에 근거하면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비중의 차이를 건축에서 확인하려 하였다. 서양건축의 공간편중성과 동양건축에서 시간을 건축화 하는 방식을 점검하였다. 동양건축에서의 시간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변화와 움직임의 문제를 끌어들이서 건축화 된 시간을 설명 하려하였다. 각 장(章)은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짝으로 대비 또는 연결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려 한다. 설명의 간편성과 비교의 효과를 위한 방법이었다.

2. 공간 - 시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어는 각각 다른 어떤 개념을 지칭한다. 그러한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의 설정은 그렇게 설정해 볼 수도 있을 뿐 그렇게 인간에 의해 설정된 대로 실존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실존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설정된 개념에 따른 단어의 일상적 사용 때문에 생기는 세뇌현상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마치 실존하는 어떤 실체의 이름인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든다. “시간이 길다”, “공간이 크다”라는 말을 하고 살면서 시간과 공간이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시계의 대중적 보급은 19세기 후반이 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시계의 보급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시간개념을 형성하였다.¹⁾ 시계적으로 인식된 시간은 시간의 계량화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위해 시간을 공간적 수치관계로 바꾼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시계적으로 인식된 우리들의 시간관념도 본래적 시간의 실체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는 것이다.²⁾ 시간과 공간이란 말은 우선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설정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지금 우리에게 인식된 시간(Time)과 공간(Space)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현상의 수학화라는 근대과학적 패러다임에 의해 새롭게 주입된 개념에 가까운 것일 뿐 인류역사에서의 보편적 시간공간이해 방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근대과학적 공간이해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해는 모든 문화에 있어서 공통적이었던 시공간 이해방식이 아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공간 이해는 서구문화적 각색이 포함된 개념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서로 연관되어 일체가 되어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독립적 대상으로 가정하여 나누고, 그렇게 나누어진 대상을 관념적으로 개념화하고, 수학적으로 계량화하며 또 그렇게 사유된 개념을 실존하는 것처럼 인식하려 한다.

1)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서울, 푸른숲, 2002), p. 57

2)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서울, 문예출판사, 2001) p. 416에서 시계의 시간을 공간화된 동질적 시간이며 시계를 본다는 것은 지속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을 세는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공간 이해도 이러한 사고경향의 결과에 가까우며 그것은 서구문화권적 사고 습관에 가깝다. 지금 우리의 일상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건축행위를 조종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란 것은 특정 사고방식과 문화적 각색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그렇게 개념화되고 언어화되어 보편적으로 활용되게 하고 있는 문화적 사유형식을 읽어야 한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실존하는 시간과 공간이란 실체적 존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처럼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 아니면 세뇌의 결과일 뿐이다.

인간의 삶과 매일의 체험에서 시간은 공간과 나뉘어 경험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대 물리학이 확인해 준 대로 시간, 공간의 인식이 절대적 실존체(實存體)로서가 아닌 상대적 관계성(關係性)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과, 측정주체(測定主體)와 무관한 절대 객관적 시간, 공간은 없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³⁾ 공간과 분리되고 인간과도 따로 떨어진 절대 객관적 시간의 존재란 것은 인간의 관념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이다.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란 것은 그렇게도 설정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측정방식 같은 것이다. 시계와 같은 기계적 작동의 방법으로 수학적 계량을 가능케 하는 측정단위라는 방식으로 길고 짧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생활상의 필요기능을 시간이라는 실존으로서 가정해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그러하다면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건축에서의 공간을 마치 시간에서 분리된 어떠한 실체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건축실현의 중요 방

편으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념적 허상을 건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시공간에 대한 실체논의가 아니라 그 이해방식이 건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실체에 관한 철학적 또는 물리학적 논의를 더 이상 길게 전개하려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얘기한 언급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의 오류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의 개념설정이 공간의 개념설정과 직결되어있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설정은 건축의 개념설정과 그 실천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건축은 시간과 공간의 인식방법의 문제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도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문화권의 건축을 이해하려 할 때에 그 문화권의 시간과 공간의 이해방식이 어떠하며 그것이 어떻게 건축화 되었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공간이란 것이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공간인식과 건축인식의 습관이 그렇게 분리 설정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통용되는 “공간”이라는 개념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시간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시간으로 분리설정될 수 있는 객관적 실체가 없다면 건축에서의 시간이란 것도 가정적인 논의 밖에 되지 못한다. 건축에서의 시간을 문제 삼을 때 우리는 그 물리적 실체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서 나타나는 시간 처리의 문화적 특수성을 문제 삼으려고 한다. 동양문화권은 시간-공간의 내용을 서양과 다르게 이해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다르게 이해된 세계관이 동서양의 건축을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 동서양의 건축을 공간과 시간, 또는 시공간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분석해본다는 것은 동서양 건축의 핵심적 구조를 들여다보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시간과 공간을 나누어 따로이 언급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실제적으로 나뉘어 있어서가

3) 이러한 문제에 관한 물리학적 논증으로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좋은 자료를 꼽자면,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시간의 역사(A Brief History of Time)」(까치, 1998)의 2장, “시간과 공간”(pp. 22-45)이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시간은 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되었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혀 별개의 무엇이였다. 이것은 오늘날 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고 있다.(p.28)

4) 절대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광희의 전제서에서 “시간의 절대성과 상대성”(pp.128-135)를 참조하였다.

아니라 논의 방법상의 불가피성 때문이고 또 그렇게 분리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할 때 우리가 이미 서구 근대문화적 각색으로서의 시간, 공간개념을 자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고 그렇게 세뇌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세뇌와 무관하게 인식된 시·공간이해의 방식이 동양건축에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공간 인식의 문화적 차이가 이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논의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서양 건축은 동양건축과 비교해 볼 때 시간을 잃어버린 건축과 같은 것일지 모른다. 서양의 근대건축은 기디온이 논한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근대에 와서 회복한 것이 아니다.⁵⁾ 서양건축의 탈 시간성과 상대적 공간집착 증세는 생각보다 고질적이며 그 증세가 상당히 심한 경우이다. 이 문제를 우리는 동양건축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관찰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비교적으로 조망해보고 싶은 것이다. 건축은 시간과 공간의 인식방법을 벗어나서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시간 - 건축

회합사상에서의 본체(Noumena)는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현상(Phenomena)계(現狀界)에 대한 반대편에 설정된다. 즉 본체는 탈 현상(脫現狀)적 실체가 된다. 서구문화권의 현상계 거부적 경향은 결국 현상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의 삶 자체가 시간·공간을 떠날 수 없을 때 시간, 공간의 인식을 자연 현상적이고 일상 경험적 시간·공간으로 놔두지 않고 인간에 의해 개념화된 시간 공간으로 바꾸고, 시간·공간을 따로 떨어진 독립적 개념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측량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규명되고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탈 현상적 순수시간과 공간으로 바꾸었다.

5) 기디온의 근대건축 해석에 관한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한다. (주 11, 12 참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이성적 관념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현상에 대한 본체추구의 이원적 구조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공간보다 시간이었다.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변화라는 것은 확고부동하고 절대적 진실에 해당되어야 하는 본체의 개념에 적당치 않기 때문이다. 서구문화는 체질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싫어하기보다 무서워한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변화와 생성, 즉 시간에 의한 불확정적인 것은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영원불멸의 존재만이 그들의 본체이었고 진리이었다.⁶⁾ 시간상의 변화는 본체적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되 인간이 저항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인 힘이였다. 서구문명이 초월적 가치추구를 불가피하게 하는 근본적 요인도 이러한 시간적 변화에 대한 거절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시간에 대한 거부란 관념적으로 탈 시간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시간을 떠난다는 것은 현실세계에 대한 가상적 초월 말고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에 대한 병적인 기피는 결국 공간에 대한 집착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는다.⁷⁾ 기하학의 발전은 이러한 배경에서 불가피한 돌파구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공간마저 거부하고는 인간이 설 곳이 없어진다. 서구인은 그 사유의 출발이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그것은 서구문화 전체의 하나의 자가당착적인 문화적 질곡(桎梏) 같은 것이었다. 인간의 삶과 경험에서 시간은 거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6) 이 문제를 논하는 문헌은 많으나 시간과 관련지어 논지를 전개하는 사례 하나를 꼽자면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제 1부 "시간의 일반적 표상"의 결론에서 (p. 99)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운동, 변화, 생성 따위는 실체성이 적고 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진정한 존재는 자기 동일성을 가진 부동의 영원한 존재이며 그 존재의 총량은 불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영원불변하는 존재 즉 본질이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들의 사고는 실체론적이다. 그리스에서 기하학이 존중되는 까닭도 그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7) 소광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러한 언급을 한다. (전계서 p. 45) "시간에 구속되어 있는 인생은 일종의 노예상태이므로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차안(此岸)을 벗어나서 피안(彼岸)에 도달하는 것이다. 차안-피안이라는 이 대비에 대해 쿨만은 그리스적 사유가 시간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공간적이라고 지적한다."

서구문화는 동양권과 비교해 볼 때 그 본질에 있어서 탈(脫) 시간적이다. 수학과 기하학적 명료성이 중요시되는 배경도 그러한 수리적 명료성만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다는 것이었다. 서구문화의 탈 시간적 경향은 인류의 다양한 문화사적 경향들 중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서 비서구문화권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서구문화의 상대적 탈 시간성은 서구문화가 갖는 하나의 기본적인 성격으로서 모든 문화의 영역에도 뿌리 깊게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건축은 이러한 서구인의 특별한 시간관의 표상이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건축은 시간이 빠진 공간의 건축으로서의 타당성을 서양문화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 민족의 유일신(唯一神)은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지 창조된 시간 속에 귀속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시간을 창조했다면 그 신은 시간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⁸⁾라는 말의 “태초”는 “시간 또는 역사의 처음”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없다. 시간이 있고난 다음에 시간의 처음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이 된다. 처음 이전의 시간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⁹⁾ 천지를 창조한 시간으로서의 태초는 탈 시간적 입장에서 창조이다. 태초와 천지의 창조는 모두 시간과 공간자체의 창조가 되어야 한다. 시간·공간의 창조자는 시간·공간의 현상계 밖에서 시간·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뿐이지 자신이 창조한 시간·공간 속에서 또다시 시간·공간을 창조할 수는 없다.

8) 구약, 창세기 1 장 1절

9) 이 문제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시간론에서 제기된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시간 그 자체도 당신이 만드신 것이요, 당신이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천지창조 이전에 어떤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는 물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록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김평옥 역 (범우사, 1987) 제 11 권 “창조의 말씀” pp. 283-284

신이라는 대상의 설정, 그리고 창조의 신화는 필연적으로 탈 시간적 영역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러한 탈 시간적 가치설정이 시간상의 변화에 가치부여를 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 창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창조의 시점(時點)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의 상황이 달라야하고 그 다른 상황은 시간적 흐름 선 상에서의 차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창조는 그러한 시간상의 변화를 초월해야만 하는 자기모순을 갖고 있다. 인간의 존재가 시간과 떨어질 수 없으면서 탈 시간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상상 가능한 사유범위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모순성과 거기에서 오는 구조적인 갈등이 바로 서구문화의 갈등일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서구문화는 문제가 풀어질 수 없도록 처음부터 설정되어져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풀어내야만 하는 자기 모순적 상황 속에서 진화해 온 문화라는 것이다. 그 모순성이 갖는 내부적 자기 갈등이 문명진화의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서구문화의 영역들이 이러한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겠지만 건축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영향이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서양의 건축은 비서구권의 건축에 비교해 볼 때 시간 속에 들어가기 거부한다. 시간 차원의 변화를 건축의 내용이고 속성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 시간이라는 삶의 불가피하고 너무나 당연한 존재방식을 의식적으로 떼어내려는 시도를 해야 했던 것이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개의 축을 억지로 나누어 설정한 후에 그중에 시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공간에 집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양건축은 “공간적 건축”으로 치우치고 건축의 “공간적 효과”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시간의 배제(排除)를 전제로 한 자기모순의 불가피한 발로(發露)였다는 사실은 숨겨져 있었다.

건축에서의 시각적 효과가 강조되는 것이나, 건축의 형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내부공간의 확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나 모두 이러한 공간 중심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건축의 시각적 효과는 이미 설정된 공간적 영역에서의

공간적 대상물을 눈으로 보는 일회성의 예술적 감상효과를 얘기한다. 그러한 공간적 대상물의 감상에는 시간이 구조적으로 개입되지 않는다. 마치 하나의 조각품의 감상이 공간적 경험현상으로 국한되는 것과 같다. 건축의 형태라는 것은 공간건축이 시각적 효과를 욕심낼 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수단이다. 내부공간의 확장이란 것은 공간적 경험의 쾌감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서 독립적 대상물의 공간성을 도구로 한 것이지 시간성을 도구로 한 것이 아니다. 서구 근대건축을 자기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같은 관점에서 건축에서의 공간적 표현가능성을 핵심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공간과 시간 사이의 불균형적 포석이 이미 깔려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은 숨겨져 있다.

서양건축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시간을 자신을 형성시키는 구조적 방법으로 취하려 하지 않는다. 시간상의 변화 자체를 건축적 가치로 노리는 일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는 형태와 공간의 문제를 건축에서의 핵심적 과제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건축과 학생들에서부터 건축가들 모두가 형태와 공간의 예술적 성취를 통한 자기표현을 건축적 이상으로 생각한다. 형태와 공간이 건축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이 배제된 공간건축의 경우에서의 이야기이다. 거기에서는 형태와 공간 빼놓고는 자기표현의 방법이 없다. 우리는 동양의 건축이 서양에서와 같이 형태와 공간을 강조하거나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관심 갖지 않았던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양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서양의 공간중심적 경향이 편향적이고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그것을 유일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일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시공간 경험에서 시간을 박탈하고 나면 공간 쪽으로 치우치고 공간적 현상을 강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서양건축은 그러한 시공(時空) 불균형의 사례인 것이다.

신전이든 성당이든 왕궁이든 그 건축은 처음에 지어진 형태대로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지향된 가치이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의 변화가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서양건축의 보존에는 원형(原形)의 보존이 중요하고 원래적인 형태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경향역시 공간 중심적 건축의 특성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한 원형보존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되 그 불가능한 것을 염원해야하는 건축이 된다. 그래서 서구세계의 건물의 보존에는 변화의 개념보다 원형의 개념이 중요하고 변화의 과정보다 본래의 형상이 중요해진다. 즉 “공간적 원형”만이 있고 “시간적 과정”은 배제되는 것이다. 사람은 그 원형적 공간 속에서 살되 그 삶이 불가피하게 시간적이라는 사실은 무시되어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건축은 본래적으로 공간적 구성이라는 전제가 처음부터 깔려있고 그것이 전혀 의심되지 않는다. 이러한 건축은 시간이 배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망각되어 있다.

서양의 건축이나 도시에서도 시간상의 경험의 변화가 무시되었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 커다란 성당의 내부공간은 현관을 들어서면서부터 제단(Sanctuary)에 도달하기까지 시간 흐름의 과정이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도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중심시설로 향하는 과정으로서의 변화경험이 배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경험은 시간적 변화자체의 디자인이라는 의도가 갖는 비중보다 공간적 디자인에서 부수되는 시간성의 불가피한 처리방식 같은 것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성당의 내부공간이란 하나의 단일 공간이다. 현관에서 제단까지는 하나의 단일 공간 속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변화이다. 이것은 공간적 규모가 초래하는 이동시간의 지속상태이지 공간적 변화를 통한 시간적 축(軸)상의 변화를 매개로한 구성이 아니다. 역사상의 도시사례에서 기하학적인 패턴이 사용된 경우는 동서양 모두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서양도시계획의 전통이 동양에 비하여 순수 기하학적으로 균질한 구획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직교하는 그리드 패턴(Grid Pattern)이 사용되어도 동양의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더 공간적으로 균등한 순수 기하학적 구획을 하고 있으며 시간상의 선후관계나 방향적 우선관계에 의존하려는 정도가 약하다.¹⁰⁾

10) 이 문제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면이 별도로

서양의 건축전통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설정하여 놓고 하나를 거부하는 것을 방법으로 하여 다른 하나를 긍정하려는 태도가 그들의 이원론적 사고습관에서와 같이 건축에서도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서구 건축전통의 습관은 같은 문화형식을 공유하는 한 벗어나기 어려운 자기합정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서양의 전통건축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서양의 근대 및 현대건축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기디온(S. Giedion)이 서양 근대건축을 시간의 차원이 추가된 차원적 진화라는 주장이 지금까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유리에 의한 투명성과 형태적 다양성을 회화에서의 시간표현에 비교하여 동시성과 움직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여 그것을 건축에서의 시간적인 표현으로 본 것이다.¹¹⁾ 이러한 해석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동양의 시간건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미화(美化)이다. 그것은 회화에서와 비슷한 시간적 표현 가능성을 건축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주장일 뿐 실제적인 건축에의 시간 도입이 아니다. 시간의 차원에서 보자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서는 그 논의를 길게 할 수 없으나 한 두 가지 지적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보다 중국의 역사도시에서 기하학적 격자형의 구성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도시의 입지와 배치가 방위적 원칙을 준수하고 도시 안의 건축도 일정한 방향성을 따르며 왕궁과 같은 상징적 건축의 위치가 특정 장소로 고정된다. 따라서 도시 및 건축적 계획개념이 공간의 기하학적 균질성보다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시간상의 이동과정에 따라 어디에 도달하는 시간적 경험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더 개입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상대적인 비교의 문제이며 또 주관적인 견해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도시보다 건축에서의 시간의 문제가 더 중심에 있는 만큼 자세한 논의를 줄이고 건축에서의 시간문제에 논의를 압축시켜야 하겠으며 건축에서는 도시에서보다 시간처리방법의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11) 기디온(Sigfried Giedion)은 그의 책 「공간, 시간, 건축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국내 번역본, 김경준 옮김, Spacetime, 2003)에서 근대건축까지의 서양건축의 변화과정을 차원적인 진화과정으로 설명하며 근대건축이 시간이 개입된 변화로서 해석하였다. 이것은 근대건축이 유리의 투명성에 의한 공간의 동시적 경험과 매스가 다양함으로 해서 움직임에 의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근대화회에서의 시간표현에 비추어 시간의 도입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이 책의 6장, 예술, 건축, 공학의 시간-공간 개념 참조) 근대에 이르러서 시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서양의 근대건축은 여전히 공간적 구성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 그것은 동양건축에서의 시간문제를 관찰해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서양의 근대 건축은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공간적 구축물이다. 발달한 것은 공간 만들기의 기술과 표현방법이지 차원적 진화가 아니다. 하나의 문명적 형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서양의 근대건축을 배워서 그것만을 자기화하고 있는 우리가 똑 같은 공간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서양건축은 근대에 와서도 공간을 넘어 시간에 이르지 못했다.¹²⁾ 우리는 서양건축의 가치와 방법을 자기화하면서 시간 배제적 입장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자기화 해버렸고 그래서 건축이란 것은 의당 그러한 공간적 구축이려니 하는 선입관내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우리의 근대건축도, 또 우리의 도시도 시간적이기 보다 공간적 구성물로서 치우쳐서 접근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의 삶이 공간적인 것만이 아니고 공간과 시간을 하나로서 같이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경험이 그대로 건축화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서양건축도 시간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시간상의 변화를 건축화 할 수 있음은 다른 모든 문화권의 건축과 마찬가지다. 서양건축은 시간의 건축이 되지 않고 공간건축으로 남아 있으려는 의도적인 기획을 처음부터 하였기 때문에 공간건축의 양상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고 그것은 서양문화만이 갖는 특수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인류의 모든 건축이 공간구성적 측면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배제되는 것까지 공통적 사실은 아니다. 서양건축은 공간적 구성을 하되 시간을 벗어나려하는 의도를 동시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적 삶이 공간적 건축과 물려 돌아가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 남게 된다. 그것은 시간을 벗어나야 하면서도 시간 속에 들어와 있어야하는 창조신화의 모순과 비슷하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건축문화가 똑같이 그러한 모순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동양의 건축관은 그러한 서구적 공간과 시간해방식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건축관을 형성시켰었다.

12) 기디온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다룬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연경, 「S. Giedion의 시간, 공간, 건축에 나타난 근대건축의 시간관 해석에 관한 연구」, (2004. 6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가 있다.

4. 天地 - 變化

“공간(Space)”이라고 하는 서구문화권의 특수한 환경인식방법이 동양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동양의 역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듯이 공간이라는 말을 건축의 영역에서 쓰지 않았다. 동양에서 공간에 해당하는 말을 굳이 찾자면 아마 “천지(天地)”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¹³⁾ 반복되는 언급이지만 “공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보편적이거나 유일한 환경인식의 틀이 아니고 서구문화권의 세계인식방법에 더 잘 들어맞는 문화적 특수개념이다. 건축이 공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불가피성에 힘입어 건축을 “공간의 문제”로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습관이고 근대적 유행이었지만 그때의 “공간”이란 것은 서구적 사고 습관과 타성의 세뇌를 강하게 깔고 앉아있는 것이다. “공간”과 “천지”라는 말은 인간의 환경인식방법의 두 가지 다른 틀을 대변하는 개념이며 그래서 두 문화권의 건축의 틀을 대변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동양에서 건축이 공간으로 출발하지 않고 천지로서 출발하였다면 시간의 문제도 천지의 문제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공간의 건축에서는 시간이 개입될 여지가 이미 좁아져 있었지만 천지의 건축에서는 시간이 이미 천지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간”에 대하여 “천지”라는 말을 썼을 때 “천지”가 “공간”과 같이 공간적 위(上)로서의 하늘과 아래(下)로서의 땅이라는 의미에서의 공간적 범위와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천지”를 “공간적 천지”로 이해하는 것이다. “넓은 땅과 높은 하늘”이라는 공간적 경험단위로서 천지를 보는 것이다. 천지는 공간성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 것은 분명하며 천지는 공간적으로 파악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천지는 공간만은 아니다. 공간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만, 천지는 인간이 만든 개념이기 전에 기존에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서 유래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칭되어야 한다. 공간은 인간의 관념과 의지에 따른 조작이 가능하지만 천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천지는 인간의 이해와 의지가 개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지는 인간의 조작가능 범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반대로 인간이 천지의 기존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천지는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공간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이미 개입되어 있다.

천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이 이미 하나로 붙어있어야만 했다. 천지는 인간이 개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의 시공간이다. 천지는 공간적 영역으로도 파악 가능하지만 그 전에 “공간의 시간적 흐름”으로서의 천지를 말한다. 동양의 천지는 공간적 위, 아래로서의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아침, 낮, 저녁, 밤이 있는 천지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시간의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땅, 나무, 물과 붙어서 하나 되어 있는 시공간적 상태로만 가능한 사계절이다. 천지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나뉘지 않는다. 천지에 공간, 시간이 있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시간, 공간이 따로 따로 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을 천지의 문제로 논했을 때 그것을 공간의 차원에서 논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시간의 차원에서 논하는 것도 틀린 것이다. 시간·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시공간”의 차원에서 논해야만 건축의 문제가 천지 속에서 제대로 위치 지워질 수 있다. 시간, 공간이라는 두 개의 개념은 천지의 존재방식이 아니고 인간의 이해방식일 뿐이며 천지는 인간의 이해방식에 따라 자신의 존재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가 건축을 공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방식을 천지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지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천지는 인간의 건축이해방식에 따라 자신의 존재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동양인의 우주(宇宙)는 공간적으로 광대무한(廣大無限)한 우주만이 아니다. 시공간적으로 불가분(不可分)한 우주이다. 우(宇)는 공간이고 주(宙)는 시간이다.¹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 우

13) 김성우, 「건축과 환경」 2000. 8 “동서양의 세계관과 건축관, 공간 - 천지” 참조

14) 우주(宇宙)라는 표현이 있기 전에 주(宙) 대신에 구(久)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었다. 久도 宙와 같은 시간차원의 개념으

주는 “시공간”이다. “우”와 “주”가 아니고 “우주”인 것이다. 그것은 “천”과 “지”가 아니고 “천지”인 것과 같다. 천지는 합해서 하나가 되어 “천지”라는 하나의 실체가 되듯이 우주도 그러하다. 그것은 “시”와 “공”이 아닌 “시공”인 것과 같다. 우주는 지구의 천지가 공간적으로 확대된 더 큰 스케일의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우주와 천지를 공간과 시간의 차원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주와 천지의 본래적 이원성 때문이 아니라 공간·시간의 분리적 언어사용과 그에 따른 사고습관 때문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단어의 사용습관 때문에도 그것을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같이 생각하기 쉽게 되어있을 뿐이다. 서양 사람들은 우주를 “space”라고 부르지 “space-time”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¹⁵⁾ 그들에게는 우주도 공간으로서 먼저 파악된다. 서양의 우주는 “宇宙”가 아닌 “宇”이었던 것이다. 동양의 우주(宇宙)는 시공간이지 공간이 아니다. 공간이란 것은 애초에 별도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시간도 없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경험에는 시공간만이 있다. 그래서 천지도 시공적 개념이고 건축도 자연스럽게 시공의 문제가 된다. 그것을 공간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은 서구화되어 있는 우리들만이 그러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뉴턴까지 믿었던 절대시간과 공간을 지금의 우리도 믿고 있는 것이고¹⁶⁾ 20세기에 와서 깨진 과학적 진리¹⁷⁾를 아직 우리는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로 사용되었다. 宇宙라는 표현은 대략 戰國時代의 「尸子」에 나오는 것이 처음이되 거기에는 “상하사방의 공간을 우라고 하고 왕래고급의 시간을 주라고 한다”(上下四方曰宇, 往古來今曰宙)라고 기록하였다. 張岱年, 「中國哲學大綱」상권, 김백희 역 까지, 1998 pp. 73-74

15) 우주를 “universe”, 또는 “cosmos”라고 부르는 경우 이외에는 “space”를 사용한다.

16) 스티븐 호킹, 전계서 p. 28

17)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은 수학자 헤르만 민코브스키로서 1908년에 그의 책 「공간과 시간」에서 “지금부터 공간 그 자체와 시간 그 자체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이 두 가지의 합체만이 독자적인 실체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기디온, 전계서 p. 13에서 재인용)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수학자 푸앵카레가 1905년에 비슷한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절대시간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기만 한다면 에테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호킹, 전계서, p. 31)

동양인의 우주와 천지는 시간 속에 들어온다. 바로 이점이 동서양의 문화를 뿌리에서부터 다르게 규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동양인은 시간을 벗어나는 세계를 상정할 줄 몰랐다. 무시간(無時間)적 또는 초시간(超時間)적 세계는 그들에게 없었다. 신(神)도 시간 속에 들어오고 진리(眞理)도 시간 속에 들어온다. 따라서 창조가 없고 종말이 없다.¹⁸⁾ 창조가 없고 종말이 없다는 것은 사물을 시간 밖에서 보려하지 않고 시간 속에서 보았다는 뜻이 된다. 거기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의 흐름만이 있었고 있을 뿐이다. 시간을 벗어나는 비현실적 세계를 가정하려하지 않았고 그러한 세계를 가정하였어도 거기에 따로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하지 않았다. 만물을 시간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 시간성 자체가 동양적 세계관의 하나의 중심이고 핵심이 된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고, 천지는 낮밤이 있으며 춘하추동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속성을 빼고 존재의 실체를 얘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간을 떠나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공간적 존재만이 아닌 시공적 존재이고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인간의 경험에서 “시간’은 곧 ”변화“다. 밥 먹은 후 배가 불렀다가 다시 배가 고파지면서 시간을 경험하듯이 시간은 변화의 경험이다. 그리고 변화의 경험은 곧 ”몸“의 경험이다. 춘하추동의 경험이 몸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변화로서 체감되지 못하고 낮과 밤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동양인이 세계를 시간 속에서 파악했다는 사실은 세계의 시간적 변화성(變化性)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성 자체를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얘기가 된다. 변하지 않는 신(神)과 같은 초월적 가정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있지도 않으며 따라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18) 창조와 종말의 개념은 기독교적 시간관의 산물이다. 창조라는 시작에서부터 종말이라는 끝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시간관이다. (소광희, 전계서, pp. 69-90, “직선적 시간 표상: 종말론적 시간관” 참조)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창조론이 없고 따라서 종말론이 없다. 창조와 종말이 없다는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것이다. 진리는 변화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성 자체가 진리가 된다.¹⁹⁾ 천지와 우주는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 속에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한다는 사실 자체일 뿐이다. 역(易)이란 것은 변화를 설명하고 그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과 철학으로서 발달한 것이고²⁰⁾ 음양(陰陽)과 오행(五行)도 변화에 내재하는 질서규명을 위해 필요한 원리들이었다.²¹⁾ 즉 동양의 사유는 변화를 설명하고 그 변화에 인간의 삶을 적응시키려는 목적과 배경에서 생성되었고 이 사실은 바로 동양적 세계관이 시간적 세계관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동양인은 모든 것을 시간 속에서 해결하려하였고 시간을 벗어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²²⁾

동양인의 세계가 氣적인 세계라고 했을 때 氣는 시간을 벗어난 氣가 아니다. 氣는 시간 속에 들어와 있고 시간과 붙어 있다. 氣는 시간적인 현상이다. 시간이란 바로 氣의 운행의 시간적 나타남이고 따라서 시간이란 氣의 다른 이름이 된다. 변화 역시 氣의 변화이고 氣적인 변화이다. 이 때의 氣는 개념이거나 관념이 아닌 실체이기 때문에 변화도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체 자체의 자기변화이다. 氣의 자기변화는 시간·공간을 분리하여 생길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시공간이란 바로 氣의 자기변화의 場인 것이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은 氣의 자기변화 과정의 한

19) 張岱年은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철학에서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하나의 경향은 변화를 우주의 근본 사실로 보는 생각이다. 변화는 근본적인 것이며 일체 사물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우주는 변화함을 쉬지 않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언급한다. (전게서, p. 227)

20) “易”은 사전적으로는 “바꿈” 또는 “변함”의 뜻이지만 「易傳」의 계사전(상)에서는 “생성하고 또 생성하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生生之謂易)고 하였다. (「易傳」은 「周易」의 한 부분)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철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현대적 조명」 범양사, 1992, 참조), 한편 「周易」을 줄여서 易이라고 쓰기도 한다.

21) 양계초, 풍우란 외,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참조

22)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참조가 되는 논증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주역의 현대적 조명」에 나오는 논문 두 개를 꼽을 수 있다. 宋恒龍, “易論에 있어서의 흐름과 머무름”(pp. 141-150), 金滿山, “易學의 時間觀”(pp. 151-162)

부분들이다. 氣의 자기변화의 원인은 氣자체에 내재한다. 그 원인과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동양인의 철학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시간의 문제는 결국 氣의 자기변화과정에서의 시간성의 문제가 된다. 시간이란 “氣的 자기변화의 과정”으로서의 항상적 시간이 된다.

이러한 동양적 시간관(時間觀)의 문제는 동양의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서양의 건축이 시간이 배제된 문화권의 건축이라고 할 때에 동양의 건축은 시간을 어떻게 자기 속에 용해시켰을까? 서양의 건축이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공간 쪽으로 치우쳤을 때에 동양의 건축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융합하여 건축화하였을까? 그래서 동양의 건축은 어떻게 “시간의 건축”이 되어 있었을까? 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가 된다.

5. 변화 -건축

시간은 시계로 잴 수 있지만 시간은 시계의 시간만은 아니다. 시계의 시간은 시간을 물리적으로 측정케 하는 하나의 기계적 방편일 뿐이다. 시계와 시계적 시간의 사용이 습관화되어버린 우리에게 시계적 시간이 시간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나 인간의 시간 경험을 시계의 시간으로 국한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고 착오이다. 인류역사의 대부분의 기간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으로 시간의 변화를 체험하여왔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천지의 자기운동과정을 몸 전체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춘하추동과, 밤낮과, 꽃이 피고 짐과,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음의 경험이 바로 시간의 경험이다. 즉 변화의 경험이다. 그 변화의 경험은 인간의 몸으로 한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떠난 시간은 없고 인간의 몸이 시간경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시계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 자체도 천지의 운행에 맞추어 적응과 순환의 리듬을 갖게 되어있다. 즉 인간의 몸 자체가 시간적으로 작용하고 반응하게 되어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몸이 하나의 생물학적 시계인 것이다. 즉 시간이란 본래적으로 시계의 문제가 아닌 “몸의 우주체험과정”의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몸을 떠난 시간은 없다. 그것은 천지를 떠난 시간이 없다는 것과

같다. 천지와 인간의 몸은 같은 시간체계 속에 들어가 있다. 인간의 몸도 천지의 일부이다. 시계의 시간은 기계적인 수치로서의 시간이고 단선적인 시간측정을 위한 기계적 반복이지만 인간은 몸이 경험하는 시간은 삶의 모든 경험을 끌고 들어가 용해되어 있는 시간이다. 지루한 시간이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있고, 추운 시간이 있고, 더운 시간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 있고, 불행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인간의 시간은 몸의 느낌의 문제이고 우주적 변화의 체험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인다. 그 움직임은 시공적 현상이다. 시간과 공간 중에 한 가지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는 움직임도 없게 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의 향유(享有)이다. 사람의 몸은 정지하고 있을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고 몸이 피곤해 진다. 그것은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몸 속의 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몸을 이동시킬 때에 고정된 바닥 또는 땅을 짚고 움직이며 산다. 그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공간적 이동을 수반한 시간이 된다. 그 움직임은 시간과 공간을 떼어내어 분리시킬 수 없는 시공적 경험을 수반한다. 움직임의 시공경험은 시공적 변화의 경험이다. 인간은 자신의 건축에서 그러한 시공적 변화 경험을 건축적으로 수용하려 하게 된다. 그 때에 시공적 변화경험 중에서 시간적 변화과정의 비중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동시에 거기에 많은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다. 움직임에 따른 시공적 변화현상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하려 할 수도 있고 시간적 변화가 배제 또는 약화된 공간적 구성을 주축으로 하여 디자인할 수도 있다. 인간의 삶에서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고 나서 시간을 배제시키면 자연적으로 변화가 배제된다. 그러면 남는 것은 공간뿐이다. 이렇듯 건축이 시간상의 변화를 어떻게 자기 속에 취급하는가에 따라 건축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다르게 처리된다. 건축이 변화를 배제하면 그 건축은 시간성이 배제된 공간의 건축이 된다. 건축에서의 시간의 문제는 몸의 이동에 따른 변화의 체험을 건축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건축이 어떠한 형식이든지 공간적 구성을 갖는

것은 동서고금이 동일하다. 공간적으로 내·외부가 있고 이쪽 방과 저쪽 방이 있고 출입문이 있는 등의 공간적 형식을 갖는다는 것은 공통적인 요건이다. 공간적 처리를 하는 방법이 다를 뿐 공간적인 처리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나 시간적 변화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이 동일하지 않다. 시간적 변화를 건축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여부와 방식, 그리고 정도가 다르다. 시간적 변화를 건축에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다르다. 물론 시간적 변화라는 것은 공간적 변화와 물려있기 때문에 시간적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은 당연히 공간적 변화가 시간적 변화에 묶이어서 하나 된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적 시공간의 경험이란 시공적 변화의 경험이고 그 변화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체험되는 변화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그 변화가 처음부터 의도되었는지의 여부와 의도되었을 때 어떻게 의도되었는지의 문제가 된다. 건축을 시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문화권에서는 바로 그러한 변화의 경험과 변화의 디자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건축의 시공간적 대응방법을 관찰하는 방법은 시간·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보는 것이 된다. 즉 어느 건축이 있을 때 그 건축이 “변화” 또는 “시공적 변화”라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의 이동은 물리적인 시공간 변화를 수반한다.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공간 변화를 시간이 고정된 단순 공간이동으로만 보지 않고 “시공적 변화”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 어떠한 의미 있는 대응을 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그 변화를 건축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와 받아들이는 정도와 방식의 문제가 된다. 변화의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에 따른 시공적 변화경험 자체가 복잡한 것이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물에 반응하고 새가 공기에 반응하는 것 같이 단순하고 당연한 것이다. 사람도 그렇게 일상적인 시공적 변화경험을 그대로 건축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건축을 공간적 구성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취급할 때에는 “의미있는 변화경험”의 가능성이 개입될 폭이 좁다. 건축을 시공간적 구성 또는 공간의 시간적 재구성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의미있는 변화경험의 문제가 개입된다. 건축에서의 시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변화처리의 문제이었지만 인류의 건축역사에서 변화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이었던 것 같다. 시공적 변화를 건축의 핵심적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디자인하려고 애썼던 문화가 있는가 하면 건축을 시공적 변화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된 3차원적 공간구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던 문화가 있었다. 하나는 변화의 건축이었고 또 하나는 불변(不變)의 건축이 되는 셈이다. 물론 변화의 건축이 아닌 건축이라고 해서 공간적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시간의 축선 상에서 어떤 의미부여가 가능하게끔 엮여지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상 공간의 건축과 시간의 건축은 흑과 백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尺)로 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시공간 처리의 정도, 방식, 성격, 의미의 차이점을 검토하면서 그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를 재는 가치 판단도 어렵다. 중요한 것은 문화권이 갖는 시간공간의 이해방식이 어떻게 건축적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는가하는 상호영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변화를 디자인하려고 애썼던 문화권에서는 시간의 비중이 커지고 변화에 무관심했던 문화권에서는 공간의 비중이 커진다. 변화를 거부하는 쪽에서 집착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간밖에 없었고 시간적 변화를 좋아했던 쪽에서는 반대로 공간적 성취를 축소 또는 자제해야만 했었다. 변화에는 변화 나름대로의 질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변화를 중요시했던 건축을 대하면서 그 공간적 차원의 가치를 공간위주의 건축에서처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변화에 무관심했던 건축을 대하면서 시간적 차원의 가치를 문제 삼는다는 것과 같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이 두 가지의 건축적 경향 중에서 한 가지에만 친숙하여서 그 한가지의 판단기준으로 또 다른 건축경향까지 판단하려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 그것은 인간의 시공간 이해 방식의 다양성을 한 가지만으로 좁혀놓는 것과 같다. 동양의 건축은 서양건축과 비교할 때 이러한 시공간 이해의 관점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서양건축의 전통은 대표적으로 공간차원에 무게가 실린 건축이었고 동양건축의 전통은 서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차원에 무게를 실었다. 그것은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그 문화권의 시간에 대한 입장차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양쪽의 경향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의 건축적 입장을 “공간건축”이라고 불렀을 때 동양의 건축적 입장을 “시간건축”이라고 불러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쪽은 변화를 무서워했던 경우이었고, 또 한쪽은 변화를 사랑하였던 경우이었다. 변화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쪽은 시간을 공간화 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또 한 쪽은 공간을 시간화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서양은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었고 동양은 순환적 시간관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²³⁾ 이러한 주장의 진위에 관한 논쟁은 이 글의 소임이 아니다. 단지 건축과 관련된 시간·공간의 입장에서 볼 때 직선적 시간관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더 “공간적인 시간인식”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하는 공간적 인식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라고 하는 시간적 인식방법이 인식상의 공통적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쪽부터 저 쪽까지의 단선적 공간인식방법에 따라 시간도 공간적 위치이동의 개념에서 이해한 편에 가

23) 이 문제는 사실상 동서양의 시간관을 단선하게 직선과 순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서양의 시간관 안에서도 히브리적 시간관이 직선에 가깝고 헬레니즘적 시간관이 원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신학자 쿨만에게서 비롯되어 하나의 정설처럼 알려졌으나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소광희, 전게서, pp. 42-43 참조) 한편 동양의 시간관이 대체적으로 순환적 시간관에 가까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거기에도 직선적 관점 또한 없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을 중심삼는 농경사회가 더 순환적 시간관을 갖는 것은 확실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양사회가 상대적으로 순환적 시간관에 가깝다는 점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소광희, 전게서, p. 37-38 참조) 그러나 이 문제는 상대적 비중과 정도의 문제로 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참고 자료로 휘트로 (G.J. Whitrow) 「시간의 문화사 (Time in History)」 (영림카디널, 1987)가 있다.

깎다는 얘기이다. 서양건축을 공간건축이라고 불렀을 때 시간이 배제되었다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시간도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간을 공간화하여 인식한 것이다.²⁴⁾

“변화의 건축” 또는 “시간건축”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반대로 “공간을 시간화”한 입장에 가깝다. 순환적 시간이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에도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다. 반대로 순환하는 시간의 순환적 시스템 속에 공간적 내용과 변화가 따라온다. 공간이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주기적 흐름과 물려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그 주기적 구조의 외형적 나타남 같은 것이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이 시공간으로서 구축될 때 시간을 주축(主軸)으로 하고 공간을 부축(副軸)으로 하여 구성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시간의 축에 공간적 변화가 물려서 따라오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건축은 사람이 시간 변화의 축에 따라 공간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공적 변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그것을 사람이 이동하며 경험하게 한다. 그때의 건축은 그 경험의 변화를 건축화 하는 것이다. 시간건축이 추구하는 것은 공간적 성취가 아니다. 더욱이 일회적인 형태와 공간의 경험이 아니다. 변화과정의 구성이 만들어 내는 시공적 변화경험의 성취를 추구한다. 창덕궁은 동궐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마당들로 이루어진다. 그 모든 마당들은 독자적 경험대상들이 아니라, 주기적 순환과정 중의 한 부분이며 전체적 이야기를 형성하는 한 토막이다. 그 이야기를 놓치면 결국 그 토막도 놓치게 된다.

6. 動 - 不動

사람의 경험에서 땅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은 바람과 같이 움직인다. 땅으로 만들어진 집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사람은 하늘의 부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건축은 움직이지 않는 땅과 건물,

그리고 움직이는 공기(空氣)와 사람의 문제가 된다. 땅과 건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하늘과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고정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과 공기가 움직인다는 것은 땅과 건물의 고정성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이다. 즉 건축은 움직이지 않는 것(不動者)과 움직이는 것(動者)의 상대구조(相對構造)로 이루어진다. 건축은 動과 不動의 양 쪽이 짝을 이루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공기와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인간의 건축은 지금과 같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덤과 건축의 차이는 무덤 속의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는 시간이 없다. 건축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위하여 짓는다. 動者를 위한 不動者의 구축을 우리는 건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건축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動者와 不動者와의 상관성(相關性)의 문제로 이해하는가 여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건축이 動者와 不動者로 구성된다는 점과 건축을 動者와 不動者 사이의 관계맺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건축을 動-不動의 상관성으로 바라보았다. 그 말은 건축에서의 不動者는 動者에 대한 상대 또는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건축이란 動者를 제외한 不動者만을 한정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건축이 “건물”만이 될 수 없고 건축이 “건물 만들기”가 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건축이란 不動의 건물의 형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動者와 不動者가 합해져서 생기는 경험의 총체성을 의미한다. 動-不動의 상관성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의 質과 성격이 건축의 내용이 된다. 건축이란 형태나 공간 만들기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비교해 볼 때 서양건축의 전통은 건축을 動-不動의 상관성으로 보기보다 “不動의 體를 구축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서 파악하였다. 그래서 공간 위주의 건축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서양건축이라고 해서 動者의 不動者에 대한 경험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형태와 공간이란 것도 사람의 경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맞다. 그

24) 시간의 시계적 측정엔 시간의 동시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러한 동시성은 시간의 공간화를 수반한 것이다. (소광희, 전게서, pp. 438-439)

리나 動-不動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관심의 비중과 목적의 선후관계로 볼 때 不動의 體가 더 결과로서 목적시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不動者는 動者를 받아들이고 動-不動이 합해서 만드는 경험의 가능성보다 不動者가 자기 자신을 不動의 논리에 따라 구축하고 표현하는 쪽의 가능성으로 비중이 쏠리게 된다. 不動者는 動을 고려한 不動者가 되기보다 不動者 자신의 표현의지와 구축논리에 따른 不動者가 되기 쉽다.

이 때 不動者 속의 공간이란 것 역시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하늘이 아니다. 그것은 흐르는 공기(空氣)가 아니다. 서양건축에서의 공간이란 것은 움직임이 필요 없는 무형(無形)의 입방체이다. 고대의 신전에서부터 중세의 성당의 내부공간은 하늘의 움직임과 그 흐름을 받아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건축이 아니다. 공간의 기하학적 관념화는 공간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생각이다. 그것은 공간이지 하늘(天)이 아닌 것이다. 이 때의 공간은 물질적 형태가 不動者인 것과 성격상 차이가 없다. 형태와 공간은 모두 不動의 논리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그것은 시간이 빠진 건축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공간의 건축”이란 바로 “不動의 건축”을 말한다. 우리는 서양의 건축이 “動-不動의 건축”이 아니라 “不動의 건축”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不動의 건축이 인간을 만족시키려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눈으로 바라보아서 아름다운 건축을 만드는 것이다. 움직임의 경험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시각의 경험이 아름다운 것을 찾는다. 이 때의 아름다움이란 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不動의 아름다움이다. 비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비례를 수학적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은 비례자체도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도 고정적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不動의 건축은 변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건축에서의 비례는 그 비례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곳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한 곳만이 있다. 파르테논과 베르사이유는 그러한 지점을 의식하고 지어졌다. 건축을 바라보는 인간의 자리도 不動의 구도에서 먼

저 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점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건축과 인간이 動-不動의 상관성 구도를 갖는다는 우리의 주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공간적 고정화의 건축은 動에 해당하는 인간마저도 不動의 틀, 즉 공간의 틀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축의 개념적 모델이라는 것이 시간이 배제된 공간의 건축, 즉 不動의 건축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건축을 動-不動의 상관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不動의 구도 속에서 파악하려한다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고 유일한 건축인식방법만은 아닌 것이다.

인간은 삶의 필요에 따라 고정된 형태 사이의 공간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이동한다. 不動의 건축에서는 그 움직임을 움직임 자체의 향유(享有)로서 이해하기보다 기능의 처리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기능이라는 것 역시 시간적 변화보다 매 공간에서의 공간적 고정성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우리 옛 집에서의 안방은 시간에 따라 그 기능이 변하지만 우리가 설계하는 주택에서는 기능이 공간마다 다르게 고정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시공간에서 시간을 빼면 공간만 남듯이 動-不動의 구도에서 動을 빼면 不動만 남는다. 우주와 자연과 모든 동물은 그렇게 시공간에서 시간을, 또는 動-不動에서 動을 제거하는 것을 할 줄 모른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건축을 “공간건축”, 또는 “不動의 건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공간건축에서의 사람의 움직임은 움직임 자체가 변화경험의 주체로서 받아들여져서 그 움직임의 과정에 의미가 부여 되는 정도가 약해진다. 공간건축에서는 動者를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動者를 의미 없는 “기계적 이동”, 또는 “기능적 이동”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한다. 인간의 움직임이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고 이유와 의미와 동기가 스며있는 삶 자체이다. 動者의 움직임에 따른 변화경험에 의도적인 의미부여를 할 생각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떨어져나가고 건축은 공간적 구성이 되며 사람은 그 속에서 이동하는 기계 같은 무엇이 된다. 서양의 근대건

축은 더욱이 그 공간구성의 개념을 기계에서 빌려왔고 그 속에서의 인간의 이동은 기계적 공간에서의 기계적 이동 같은 무엇이 된다.²⁵⁾ 공간이 기계적일 때 그 속의 사람의 움직임이 비 기계적일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시간도 기계적인 시간이 된다. 지금 우리의 건축에서도 사람의 움직임 처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형태적 심미성과 공간적 효율성을 노린 대부분의 건축에서 인간의 이동이란 물리적 이동이지 의미 있는 변화의 경험이 아니다. 그러한 不動의 건축에서도 인간은 생존한다. 필요에 따라 이동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빠진 공간건축에서도 인간은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이란 그렇게 움직이는 인간과 그의 경험을 위해 짓는 것이지 건축 자체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니다. 건축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은 건축의 목적이자 건축표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건축의 주체이고 주인이며, 그의 움직임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삶 자체이며, 건축에서의 움직임이란 건축경험의 모든 것이다.

不動의 건축, 또는 공간건축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動者의 건축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動者의 건축, 또는 시간건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의 무감각하다. 우리는 건축의 부동적(不動的) 몸체 자체를 건축의 주요 내용으로 보고 그 내부의 공간적 가능성에 집착한다. 그 공간적 가능성이 動者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건축이 처음부터 不動者의 공간적 성취 가능성을 위주로 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動者의 움직임의 문제는 “기능(機能)”과 “사용(使用)”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고려된다. 인간의 시공간적 경험은 기능과 사용의 문제와 같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특정사례들을 지금 우리는 건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형태와 공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양성과 심미성을 구가(謳歌)하려는 노력은 바로 건축과 인간을 부동적(不

動的) 공간의 문제로서 고정시킨 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건축을 그렇게 인식한 문화권에서는 전통건축, 또는 근대건축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건축역사 전체가 그러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공간건축을 건축이라고 생각하여 오지 않았던 동양인의 근대세계에서도 똑 같은 不動의 건축만이 유일한 건축의 가능성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건축이 動-不動의 자연적 상황에서 動을 제거하고 시공간의 일상적 경험에서 공간을 선택적으로 취한 결과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그들의 건축에서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는 숙제를 풀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7. 공간건축 - 시간건축

공간건축의 특성은 바로 서양문화 자체의 하나의 특성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양인은 선진(先秦)문명에서부터 생성하고 또 생성하는 易의 원리를 우주적 근본으로 생각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에 플라톤은 생성하는 것은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⁶⁾ 서양문명은 시작에서부터 생성 변화를 야기하는 시간을 고정시킴으로 얻어지는 공간적 존재를 본질적인 것으로 믿으려 하였고 그러한 믿음에서 건축을 출발시켰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공간건축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양건축에서의 不動者의 디자인은 不動者 자체의 디자인이 아니었다. 不動者의 디자인은 動者에 대한 대응체(對應體)의 디자인이고 動-不動적 전체 디자인에서 분리될 수 없는 구조적 반(半)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의 입장에서 볼 때는 不動者만의, 또는 不動者를 위주로 한 건축은 적당한 건축이 아니다. 대응관계의 디자인이어야 하고 그 균형이 중요할 때 대응시켜야 할 짝이 없거나 약해지면 건축이 처음부터 잘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動-不動의 대응체계로서 건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시간건축이 가능해 진다. 不動

26) 플라톤, 「티마이오스」의 담론의 시작에서 (27 d - 28 a) “언제나 존재하여 결코 생성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늘 생성되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전자는 이성을 통해 사유로 파악되므로 자기 동일적인 것이고 이에 반해 후자는 이성 없이 감각적 지각과 의견으로 표상되는 것이므로 생성 소멸하여 결코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소광희, 전거서, p. 216에서 재인용)

25) 여기에 대하여는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푸른 숲 1997)에서 잘 논의 되어있다. 특히 3 장, “공간-기계의 개념적 요소들”과 4 장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의 건축은 공간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動-不動의 건축은 시간을 빼고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물론 공간을 빼고도 처리가 안 된다. 여기서 시간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간을 빼거나 약화시킨 건축이 아니라 시공간 건축을 가리킨다. 또는 공간 시간 사이에 있어야만 하는 균형을 추구하는 건축이다. 단지 공간건축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시간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건축이란 動의 건축이 아닌 動-不動의 건축이 된다.

동양의 전통적 건축사례들을 이러한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그것이 움직임에 따른 변화의 경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찰의 일주문과 천왕문, 그리고 누각을 지나 대웅전에 이르는 과정은 不動者 각각의 개체적(個體的) 디자인의 문체가 아니다. 이 경우는 각 건물의 형태와 공간을 공간건축적 관심에서 접근한 경우가 아니다. 각 문(門)과 건물의 형태나 규모,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 보행로와 그 주변상황, 등의 모든 건축적 처리는 개체적 건물디자인이기 이전에 그 배치를 이동하며 얻게 되는 변화경험의 디자인을 위한 것이다. 변화경험의 디자인이란 한 지점과 또 다른 지점과의 사이의 변화 및 그러한 변화들을 노린 것을 포함하되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변화과정이 시간적 흐름을 통해 쌓여지는 과정 전체의 누적적(累積的) 느낌 역시 디자인의 목적으로 노려진 것이다. 천왕문의 위치와 규모는 일주문과 누각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누각의 건축적 처리방식은 천왕문과 대웅전 사이의 시간적 전후관계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것은 動者와 不動者 사이의 시공간적 상관관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경험창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발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건축경험이 공간경험만이 아닌 시공적 경험이라고 처음부터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발상이다.

사찰에서의 모든 구조체들은 사찰 전체적 경험의 시간상의 변화와 그 변화과정이 만들어내는 연속적 이야기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다. 그것은 不動者를 계획할 때 不動者 각각의 독립적 표현 대신에, 어떻게 하면 動者의 경험을 시간적 변화과정을 통해 심도 있고 의미롭게 서로 엮을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경험과정과 연계하여 그 시공간적 연쇄(連鎖)효과를 노린 것이다. 사찰 전체는 하나의 공간적 전체로서도 보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새가 아닌 이상 그러한 공간적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경험하지 못한다. 인간은 사찰에 있는 순간순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 공간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의 연속은 시간의 축에 따라 엮여지게 된다. 시간건축에서 공간의 경험은 시간의 구조에 맞추어 짜여지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 중에서 하나를 골라 더 무게를 신는다면 공간보다는 시간에 비중을 쏟는다. 그래서 시간적 구성을 위해 필요하면 단위 공간적인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 물론 양쪽을 모두 살리고 그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시간을 제한하고 공간을 살리기 보다는 공간을 제한하고 시간을 살리려 한다. 공간을 살리는 것은 부분을 살리는 것이지만 시간을 살리는 것은 전체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간건축이 不動者의 건축일 때 시간건축은 상대적으로 動者의 건축에 가깝다는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사찰과 같은 전통건축을 대하면서 각 不動者의 디자인이 서양건축에서와 같이 다양하지 않거나 자기만의 독자적 표현이 약한 것 같은 경향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건축의 動-不動의 상황변화문제는 산 속의 사찰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궁궐도 마찬가지고 서원, 향교도 마찬가지이며, 주택을 포함한 전통건축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것은 건축규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건축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양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문과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중심건물이 있는 최소형식으로 축소하여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전통주택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동양의 건축이 기본적으로 본 건물(宮)과 문(闕)으로 이루어지는(宮闕) 점은 주택에서부터 궁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며 또한 그것은 중국의 고대건축에서부터 불 때에 기원전 천 수 백 년 이전부터의 공통적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것이 단순히 공간적 배치계획의 차이라고만 보아버릴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시공간에 대한 인식방법의 차이에서 생겨진 결과로서 일종의 “건축적 시간관리”의 방법이다. 사람의 진입을 일정방향과 위치로 통제하고, 문(門)을 지나는 전(前)과 후(後)의 경험변화를 차단과 통과와 건축적 장치를 통해 극대화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새로운 공간영역을 경험하게 하되 문에서부터 마당을 거쳐 본 건물까지의 도달과정과 건물에 접근한 후의 진입과정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조절되게 한다. 이러한 건축적 처리는 공간건축에서와 같은 不動者적 動者의 처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건축경험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시간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단위건축적 현상은 궁궐의 한 부분에서부터 작은 싸리울타리 속의 초가삼간 집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축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다 복잡한 시간관리의 방법이 활용되게 된다.

한 채의 건물 안에서 사람이 마당에서 툇마루로 올라서고, 툇마루가 대청마루로 이어지고, 대청에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집 안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그 공간들은 공간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적 개체로서 나누기가 어렵지만 그 연결의 방식도 단순한 병렬(並列)적 병치(並置)가 아니다. 그것은 각 공간의 개방과 폐쇄의 정도, 동선의 흐름과 방향, 공기의 통합과 막힘, 등의 경험이 점진(漸進)적이고 전이(轉移)적이 되도록 그 변화과정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경우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관리가 용도와 계절에 따라 융통적일 수 있도록 개폐방식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경우이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여관이나 호텔에서의 복도와 객실을 분할하는 방식이나 학교나 사무실건축에서의 평면계획하고는 다른 것이다. 공간은 기계적으로 기능에 따른 분할을 해도 사람이 살게 할 수는 있고 그러한 공간들에서도 변화의 경험은 있다. 우리 옛 집에서의 공간들은 그러한 공간분할도 아니고 그러한 기계적 공간에서의 변화경험도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건축과 사람의 動-不動 관계를 인식하고, 사람의 이동에 따른 공간변화의 시간적 구성을 염두에 두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들이었다. 그 공간들은 사무실에서의 옆 방이나 주택에서의 옆 침실하고는 다른 개념에서 나온 결과이었다. 공간건축이 아닌

시간건축이었던 것이다.

그 경험의 흐름은 대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부터 마당을 거쳐 방에 좌정하기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시공간 경험의 흐름이다. 동양건축에서는 바로 그 흐름을 디자인 하려한 것이다. 대문을 지나 마당의 열려있음을 통해서 안방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변화 과정을 거쳐 점차로 자신의 공간으로 도달하는 과정도 그러하지만 그 사이의 공간적 처리에 있어서의 다양한 개구부와 칸막이의 구성, 그리고 마당의 흙바닥, 마루의 나무바닥, 방의 온돌로 이어지는 다양한 변화과정이 단순한 공간적 단위의 디자인으로만 보아버려서 좋은 경우가 아니다. 그것은 不動者의 다양한 처리에 따른 動者의 변화경험의 시간적 연속이 빚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욕심낸 것이다. 사찰의 변화경험은 하나의 시간 디자인의 형식이고 서원이나 향교의 변화경험의 또 다른 형식이다. 궁궐과 마을 및 주택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형식적 고유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간건축의 변화계획(變化計劃)적 입장은 평면적 대지 위에 하나의 독립건물이 서있는 것과 같은 공간건축의 개념에 비교하여 볼 때 그 발상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동궐도와 같은 그림이 보여주는 건축의 의미는 공간건축적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시간건축을 시간건축으로 보아주지 않고 공간건축으로 보려는 것은 물고기를 새의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동양의 집들은 기본적으로 앞이 있고 뒤가 있다. 주된 접근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고정된다. 조각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접근이 아니고 정해진 길을 따라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가 있는 접근이다. 그 경로가 복도처럼 고정된 것은 아니며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된다. 건축의 영역이 수평적으로 넓어지면서 반드시 공간적 영역들을 담장이나 건물로 차단하여 여러 공간적 영역들로 분할한다. 시선과 움직임을 특정방향과 방법으로 유도하여 그 나누어진 영역들을 지나가며 공간적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그러한 공간들은 기하학적으로 분할되거나 독자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경험의 선후관계에 맞도록 공간적 변화를 의미 있게 엮어내려 한다. 그 변화는 대개

의 경우 갑작스럽거나 대비적이기 보다 점진적이고 은근하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의 흐름에 젖어들게 한다. 그래서 動者는 不動者와 편안하게 관계 맺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험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낸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의 질(質)과 수준은 그 건축을 구성하는 매 공간들의 형상적 가치에 좌우되기보다 경험과정이 만들어내는 전체적 이야기의 내용과 수준에 더 중요하게 좌우된다. 여기에서 건축은 회화나 조각이 되기보다 음악이나 문학이 되려한다. 건축은 시각경험이 되기보다 시공적 흐름에 대한 느낌이며 존재와 삶의 시간적 궤적(軌跡)이 된다.

이렇게 시간건축은 不動者를 경험하는 動者의 과정적 변화의 흐름을 의미 있게 구성하려하며 이것은 공간건축과는 디자인의 목표와 관심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변화 경험 과정의 디자인, 즉 “시간의 디자인”이 중요 내용이 된다. 공간건축에서 관심 갖는 형태와 공간의 문제는 변화경험의 과정에 부합하는 정도와 방법으로만 의미가 있다. 건물 각각의 형태 만들기와 같은 공간적 관심은 공간건축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시간건축의 주목적이 되지 못한다. 변화과정 전체에 손상을 주면서 각 건물의 형태나 공간을 따로따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간적 경험들을 조절하고 관리하여 그것들이 시간의 축을 따라 엮이게 한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의 건축경험은 각 건물들의 공간적 표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변화의 내용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이 모두가 합하여져서 형성하는 시공적 전체로서의 흐름과 그 흐름이 만드는 이야기의 내용과 질(質)의 문제인 것이다. 변화내용은 각 공간의 구체적 변화들의 선후관계로 엮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공간적 변화들이 하나로 엮여지는 과정은 시간적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를 엮어내어 하나의 일관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시공적 흐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의 문제이지 대상적 물체의 시각적 심미성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건축에서 우리는 공간건축에서와 같은 경험적 내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옛 집 한 채, 또는 궁궐이나 사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시

대의 건축관습에 젖어있는 우리는 무지하기 쉽다.

8. 결론

인간은 자신의 시간 공간의 인식방법을 그대로 건축화 하는 것 말고 달리 건축의 방법이 없다. 문화권마다 시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같을 수 없었고 그 때문에도 건축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동양과 서양은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입장 위에 문화를 구축하였고 그 다른 입장은 당연히 그들의 건축을 다르게 하였다. 이 논문은 동서양의 건축이 서로 다른 시공간관을 어떻게 건축화 하였는가를 검토하려하였다.

동서양의 건축은 우선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고 한 쪽을 다른 쪽보다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양은 시간보다 공간을 더 중요시하여 건축이 기본적으로 공간적 구축이 되게 하였다. 반면에 동양건축은 시간과 공간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였으나 공간을 주축으로 하기보다는 시간의 축에 공간적 단위들이 부속되는 방식으로 시간을 더 중요시하였다. 결국 서양건축이 공간의 건축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동양의 건축은 시간의 건축이 된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건축이 변화와 움직임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양은 변화를 회피하려 한 반면 동양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고 서양은 사람의 움직임을 공간적 틀에서 수용하려 하였지만 동양은 시간적 틀에서 수용하려 하였다. 결국 서양건축은 시간을 공간화한 공간건축이 되었고 동양건축은 공간을 시간화한 시간건축이 되었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건축을 자기화 하였고 그 결과 서구적 공간건축의 모델이 건축의 유일한 전형인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전통건축이 왜 어떻게 시간건축이었었는지는 잊혀져 있다. 공간건축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근대건축을 포함한 서양건축의 역사가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형태와 공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시각적 감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바로 공간건축의 특징이다.

시간건축은 눈으로 보는 감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귀로 듣는 음악도 아니다. 발로 움직이지만 물리적 움직임 자체가 건축경험이 되지 않는다. 온 몸으로 경험하되 그 경험의 지속 과정이 만드는 이야기의 문제가 된다. 그것은 온 몸으로 듣는 건축적 이야기 같은 것이며 그것은 시간건축 말고는 달리 경험되지 않는 특별한 건축 경험방식이다. 그 경험방식을 공간건축적 내용으로 좁혀놓고 나면 건축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고 만다. 공간건축은 시간도 공간화 하여 (Spatialized Time) 공간적 질을 경험하려 하지만, 시간건축은 공간을 시간화하여 (Temporalized Space) 궁극적으로는 시간적 질을 경험하려 한다. 이것은 시간을 공간에 대하여 상위차원의 축으로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접근한 것이 아니고 시공간적 변화과정 자체에 계획의 초점을 맞추어서 생긴 결과라고 이해하면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전통건축을 경험하는데 있어서도 공간과 형태의 눈으로 보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축인식 습관이 시각적으로 취해지는 고정적 모습으로서의 공간-형태의 드러남에 의미 부여를 습관적으로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해인사 경내를 돌아보고 나서 시간적 변화과정이 만드는 이야기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조각난 공간적 파편들 말고 없다. 동양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공간으로 말하지 않는다. 변화 흐름의 이야기, 즉 시간으로서 말을 한다. 공간의 이야기는 시간으로 엮어서 듣지 않으면 의미 없는 독백이 된다.

시간건축에서 움직임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진로 선택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는 시공간 변화경험의 주인이 된다. 건축에서 인간은 모두가 스스로 연기자(Performer)가 되고 건축경험은 하나의 연기(Performance)가 된다. 건축의 실체는 대상물이 아니고 그러한 인간의 경험 자체이며 그 경험은 공간적 물건(Thing)의 경험이 아닌 “과정적 연출”이 된다. 그래서 건축은 “공간”이 아닌 “시간”이 된다. 그렇게 건축은 “공간건축”이기를 거부하고 “시간건축”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처음부터 시공간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건축”은 인간이 천지의 자기변화에 대응하여 살면서 터득한 변화의 질서를 건축에 적용하

여 생긴 것이다. 그러한 건축은 변화를 좋아하고 즐긴다. 그리고 공간적 변화들이 시간적으로 엮여 만들어내는 흐름의 이야기를 사랑한다. 이러한 건축은 공간건축으로만 남아있지 못하고 공간들을 시간으로 엮어내는 시간건축으로 진화하려 한다. 건축은 “공간적 시각예술”이 되기보다 “시간적 경험연출”이 되려 한다. 그것은 동양인들의 시공간적 세계인식이 공간과 시간을 분리하여 그중에 하나만을 골라 선택적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시공적 세계경험을 체험한 그대로 자연스럽게 건축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동서양의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모든 건축의 사례들을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과 공간의 인식방식의 차이는 눈에 안 보이지만 건축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구조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건축은 서양과 같은 공간건축으로 보아져서는 그 본질이 파악되지 않는다. 서양건축의 전통이 공간의 가능성에 치우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건축은 시간-공간 사이의 균형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서울, 푸른숲, 2002),
2.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서울, 문예출판사, 2001)
3.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시간의 역사(A Brief History of Time)」(까치, 1998)
4. 구약, 창세기 1 장 1절
5.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김평옥 역 (범우사, 1987)
6. 기디온(Sigfried Giedion), 「공간, 시간, 건축 (Space, Time, and Architecture)」(국내 번역본, 김경준 옮김, Spacetime, 2003)
7. 이연경, 「S. Giedion 의 시간, 공간, 건축에 나타난 근대건축의 시간관 해석에 관한 연구」, (2004. 6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8. 김성우, “동서양의 세계관과 건축관 공간 - 천지” 「건축과 환경」 2000. 8
9. 張岱年, 「中國哲學大綱」 상권, 김백희 역

까지, 1998

10.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현대적 조명」 범양사, 1992, 참조

11. 양계초, 풍우란 외,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12. 휘트로 (G.J. Whitrow) 「시간의 문화사 (Time in History)」 (영림카디널, 1987)

13.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Space and Time in the Architectures of the East and the West

Kim, Sung-woo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Abstract

The tradition of architecture in the East and the West are different in many ways. One of the basic cause of such difference, however, is the different ways of perception of space and tim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attitude of perception of space and time in the cultures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its influence on architecture. Degrees of importance placed on either space or time, as well as the modes of perception of space and time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architecture. Basically, the architecture of the West seems to be more spatially oriented than the East, and this have much to do with the fact that the tradition of Western architecture is visually oriented. On the other hand, East Asian architecture have been more conscious on bodily feeling and its movement in architecture. Spatial units of traditional Eastern architecture, are arranged in such a way in which man can experience the change of space that is supposed to be organized to form a sequential message. Thus, in the East, temporal dimension is more deliberately included in the course of architectural experience compared to the cases of the West. Although it is not easy to attempt any kind of value judgment on such aspect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 different perception of space and time influenced architectural outcome, especially when one wants to understand the cultural cause that have made the architectures of the East and the West very different. Such understanding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East Asia where their future of architecture depends much on how they harmonize the Eastern and Western background which are already built up as two cultural structure in their consciousness to be able to create more desirable architecture for themselves.

keywords : space, time, the East and the West, architecture, change, movement
